

2006년 2월
석사학위논문

정신분열병 및 기타 정신증
환자에서 나타난 박해자의
시대에 따른 변화

조선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김 한 석

정신분열병 및 기타 정신증
환자에서 나타난 박해자의
시대에 따른 변화

Changes of the persecutors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nd other psychotic disorders with the
vicissitude of the times

2006년 2월 일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의 학 과

김 한 석

정신분열병 및 기타 정신증
환자에서 나타난 박해자의
시대에 따른 변화

지도교수 김 학 렬

이 논문을 의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0월 일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의 학 과

김 한 석

김한석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상학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상훈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학렬 인

2005년 11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표 목 차	i
도 목 차	ii
영 문 초 록	iii
I. 서	론 1
II. 방	법 2
III. 결	과 5
IV. 고	찰 23
V. 결	론 27
참 고 문 헌	29

표 목 차

Table 1. Subject paper	2
Table 2. Comparison of sociodemographic factors	6
Table 3. Patient's number of each persecutor class : Total(Male/Female)	8
Table 4. Frequency(%) of each persecutor class : Total(Male/Female)	8
Table 5. The number and frequency(%) of each persecutor class from all of 15 papers	9
Table 6. Changes of the persecutor(%) with the vissitude of the times (Total)	18
Table 7. Changes of the persecutor(%) with the vissitude of the times (Male)	18
Table 8. The changes of the persecutor(%) with the vissitude of the times (Female)	18
Table 9. Z-value and P-value from Z-test in each group(A, B, C)	20
Table 10. Comparison of capital region and the country (Total)	22
Table 11. Comparison of capital region and the country (Male)	22
Table 12. Comparison of capital region and the country (Female)	22
Table 13. Z-value and P-value from Z-test of capital region and the country	22

도 목 차

Fig. 1. Frequency(%) of each persecutor class from all of 15 papers	10
Fig. 2. Changes of frequency(%) in each persecutor class (Total)	11
Fig. 3. Changes of frequency(%) in each persecutor class (Male)	13
Fig. 4. Changes of frequency(%) in each persecutor class (Female)	15
Fig. 5. Changes of persecutor(%) with the vissitude of the times (Total)	18
Fig. 6. Changes of persecutor(%) with the vissitude of the times (Male)	19
Fig. 7. The changes of persecutor(%) with the vissitude of the times (Female)	19

ABSTRACT

Changes of the persecutors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nd other psychotic disorders with the vicissitude of the times

Kim Han-Sok M.D.

Advisor : Prof. Kim Hack-Ryul. M.D., Ph.D.

Department of Medicin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Objective : The author investigated changes of the persecutors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nd othe psychotic disorders with the vicissitude of the times.

Methods : Date were collected from 15 papers(total : 2944 persons, Male : 1677, Female : 1267) about persecutors observed in Schizophrenia and other psychosis patients with persecutory delusion which were published between 1962 and 2004 in Korea. Persecutors were classified into 7 Classes : Class 1(unspecified or all person), Class 2(family, relatives), Class 3(neighbors, friends, fellows), Class 4(The communist, The Red-army, spy), Class 5(Secret agents, police, political character or army), Class 6(impersonal), Class 7(others). Papers were classified into 3 groups(A, B, C) by the times : group A(1945~1960), group B(1961~1992), group C(1993~2004). The author investigated the total frequency(%), tendency of changes, difference of frequency in each group of times(A, B, C).

Results : 1) Class 1(25.35%) was the most common persecutor. 2) Class 2 and Class 6 showed the highest tendency of increase and Class 4 showed the highest tendency of decrease. 3) In comparison of group of times(A, B, C), Class 4 showed higher frequency in A times. Class 5 showed higher frequency in B times and Class 6 showed higher in C times. 4) In comparison between capital region and the country, Class 1 and Class 5 showed higher frequency in capital region and Class 6 showed higher frequency in the country. 5) In comparision by sex, Class 2 showed higher increasing tendency in female and Class 3 showed higher increasing tendency in male. Class 4, Class 5 show statistically available conspicuous decreased results in C times in male.

Conclusion : Persecutors of persecutory delusion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nd other psychotic disorders vary by sex, regional position and have been changing with the vicissitude of the times.

KEY WORDS : Schizophrenia and other psychosis, Persecutory delusion, Persecutor.

I. 서론

‘정신분열병의 증상이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은 문화정신의학의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오고 있고¹⁾ 문화적인 요소는 임상적인 증상의 현상을 변화하는데 영향을 끼치며 또한 나라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한 나라안에서도 시대적 변화 및 지역적 특색에 따라 증상의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나라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함은 물론 한 나라 안에서조차 지역별 특색에 따라 그 증상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¹⁻⁷⁾

정신분열병의 특징적인 증상의 하나인 망상은 사회문화적 상황에 민감하게 변하고¹⁾, 주제 또한 피해, 관계, 신체, 종교, 과대망상 등 다양하나 피해망상이 가장 흔하며^{1,8-10)}, 피해망상에서 나타나는 박해자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달라짐과 동시에 한 문화권 안에서도 변하기도 한다.^{9,11-24)}

따라서 정신분열병 및 기타 정신증 환자들의 피해망상에서 나타나는 박해자에 관한 연구는 내적 갈등을 어떤 외부의 대상으로 투사하는가를 볼 수 있고, 시대적 상황을 민감하게 반영해 줄 수 있는 자료로서 정신의학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⁶⁾

우리나라에서는 이병윤과 민병근(1962)¹²⁾이 최초로 정신분열증의 망상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8,9,11-24)} 피해망상과 망상에서 나타나는 박해자에 대한 연구를 보고해 왔으며, 박해자의 종류는 불특정인, 가족, 친척, 이웃, 친구, 직장동료, 정치적대상, 정보기관, 공산당, 빨갱이, 간첩, 경찰, 군인, 초자연적 및 비 인간적 존재 등 다양하였고, 박해자의 빈도 또한 각 연구보고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가 있었으나 주로 횡단면적 연구들이었다.

194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현대사는 파란에 찬 격동의 연속이었다. 1945년 해방 이후 좌·우익 대립, 분단, 동존 상잔의 한국 전쟁, 4.19 혁명, 5.16 군사 쿠데타와 유신체제, 5.17 학생의거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신군부세력에 의한 12.12 쿠데타 및 군부세력의 집권, 언론 통폐합, 남북이산가족 상봉, 6.29 민주화 선언 및 직선제 개헌, 노동조합 결성, 서울 올림픽 개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문민정부 수립,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진입,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도입, 비정부기구(NGO)활동 활발, 남북 정상 회담 개최, 금강산 육로 관광 실시, 여성 리더의 출현 및 여성부 출범, 실업률 및 신용 불량자 급증 등 많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인 시대적 변화를 겪어왔다.²⁵⁻²⁷⁾

따라서 1945년 해방 이후 부터 현재의 문민정부 시대까지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신분열병 및 기타 정신증 환자들의 피해망상 속에 나타난 박해자들의 빈도 및 변화 양상을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II. 방법

A. 연구대상

1962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피해망상에서의 박해자와 관련된 논문 중에서 박해자의 종류별 출현 빈도를 조사한 15개의 논문을 선별하여 조사하였다(Table 1). 이중 4개의 논문은 각기 다른 시대의 박해자를 서로 비교한 종문화적연구(cross cultural study)였고, 나머지 11개의 논문은 동시대에 발생한 박해자의 출현빈도를 조사한 횡문화적연구(cross sectional study)였다.

Table 1. Subject paper

Cross cultural study(종문화적 연구)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른 망상내용의 분석	1985	조완숙, 신동균, 이병윤 ⁹⁾
정신분열증 망상속의 박해자 ; 과거 10년간의 비교	1993	어호근, 김광일 ¹¹⁾
정신병 환자의 망상에 나타난 대상	1995	이형영 ¹²⁾
정신분열증의 망상 ; 발병시대에 따른 망상내용의 차이	1999	최주연, 김광일, 박강규 ¹³⁾
Cross sectional study(횡문화적 연구)		
한국인 정신분열증환자의 망상에 대한 연구	1962	이병윤, 민병근 ¹⁴⁾
한국인 정신증 환자의 피해망상에 나타난 박해자	1970	오승환 ¹⁵⁾
정신 질환자의 망상에 관한 연구	1974	이헌재 ¹⁶⁾
편집성 정신분열증의 아형별 망상 및 환각에 관한 내용분석	1974	이대회, 이병윤, 송남옥 ¹⁷⁾
정신증 환자의 망상에 나타난 대상	1974	이형영 ¹⁸⁾
입원환자의 피해망상에 대한 임상적 고찰	1977	김학렬 ¹⁹⁾
꿈과 망상속의 박해자에 관한 비교연구	1983	김광일, 박영천 ²⁰⁾
정신과 입원환자의 피해망상에 나타난 박해자에 관한 연구	1991	황인복 ²¹⁾
정신분열증 망상에 나타난 박해자 : 인구학적 및 임상요인별 출현빈도	1996	이준석, 김광일, 박강규, 정은기 ²²⁾
정신분열병 환자의 종교성향과 망상에 나타난 박해자	1998	이준석, 김광일, 이종일 ²³⁾
일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은 피해망상을 가진 정신분열병 환자의 박해자	2004	김승곤, 김학렬, 김상훈, 박상학, 김재민 ²⁴⁾

B.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KERIS 학술정보서비스검색 (<http://www.riss4u.net>), 전자도서관(<http://www.dlibrary.go.kr>), 한국학술정보 대학학위논문 제목검색(<http://kiss.kstudy.com>),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회지 검색(<http://www.knpa.or.kr/>) 등을 통하여 검색된 논문 자료 및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자료와 대학논문집, '정신건강연구' 등에 발표된 피해망상에서의 박해자에 대한 논문을 수집하였다.

2. 방법

수집된 논문을 조사 대상 환자에 따른 결과를 연대순으로 나열하였고 15개의 논문에서의 17개의 결과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논문에서의 연구대상, 연령, 지역, 학력, 종교, 직업 등의 변수와 각각의 연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박해자의 빈도와 그 순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모든 변수에 있어서 '전체', 그리고 '남', '여'로 분류하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모든 논문에서 이를 적용시킬 수는 없었다. 박해자의 경우 17개의 결과 중 12개의 결과에서만 '남', '여'로 구분하여 각각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었다. 연령, 학력, 종교, 직업의 변수에 대하여서는 그 빈도를 상세히 제시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단순히 고빈도순으로만 나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구 보고들은 각기 다른 병원에서 각기 다른 연구자가 조사한 것이어서 진단기준, 박해자의 분류방법, 연구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어 엄격하게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대체적인 경향을 알아볼 수 있음에 그 의의를 두고 각각의 연구에서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공통적 기준을 정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박해자의 경우 각 논문마다 박해자의 종류를 분류하는 기준이 다소 차이를 보여 이를 공통적인 기준으로 재분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논문에서 적용 가능한 7가지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다른 연구 결과와의 객관적 비교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7가지 박해자의 계열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계열 1 : Unidentified or all person(불특정인)

계열 2 : Family, relatives(가족, 친족)

계열 3 : Neighbors, friends or fellows(이웃, 친구, 직장동료)

계열 4 : The communist or the red army, spy(공산당, 빨갱이, 간첩)

계열 5 : Secret agents, police, political character or army(정치적 대상,

안기부, 경찰, 군인)

계열 6 : Impersonal(monster, devil, ghost, dead ancestor ect)(초자연적, 비인간적 존재)

계열 7 : Other(기타)

모든 논문에서 제시된 다양한 박해자의 종류를 상기 7가지 계열로 제한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논문에서 계열 1에서 계열 7까지의 분류를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으며 각각의 논문에서 제기한 소수의 다른 박해자 종류들은 모두 계열 7의 항목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시대상에 따른 박해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17개의 결과를 시간순으로 꺾은 선형 그래프로 표현하여 전체 기간동안에 박해자 각 계열의 변화양상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각 결과의 조사 기간 따라 A, B, C 3가지 시대군으로 연구자 임의로 나누어 각 시대군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즉, A군은 1945년 해방 이후와 1960년 4.19 혁명시까지의 제 1, 2공화국 시대, B군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와 1979년 신군부 세력에 의한 12.12 쿠데타 이후 1992년까지의 군부세력 집권기인 제 3, 4, 5, 6 공화국 시대, C군은 1993년 부터 현재까지 문민정부 집권기인 제 7, 8, 9 공화국 시대로 구분하였다.²⁵⁻²⁷⁾

또한 17개의 결과 중 수도권에 소재한 병원에서 조사된 13개의 결과와 지방병원에서 조사된 4개의 결과를 서로 구분하여 수도권과 지방에서 조사된 각 박해자의 계열별 환자수와 빈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자료 분석

- a. 시대 구분 없이 모든 결과를 총 망라하여 각 계열의 환자수와 빈도를 알아보았다.
- b. 연대순으로 나열된 박해자의 7가지 계열에 대하여 꺾은선형 그래프로 표시하여 시대적 변화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변화를 회귀분석을 통한 추세선으로 표시하였다.
 - (1) 추세선의 기울기가 양수 : 증가 추세를 의미
 - (2) 추세선의 기울기가 음수 : 감소 추세를 의미
 - (3) 추세선의 기울기가 0에 가까울수록 변화가 없는 것을 의미
 - (4) 추세선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변화 또한 급격한 것을 의미
 - (5) 추세선의 기울기를 통하여 앞으로의 박해자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예측하여 보았다.

- c. (1) A, B, C 세 시대로 나눈 data에서 나타난 각 시대에 따른 박해자의 빈도를 꺾은선형 그래프로 표시하여 박해자 7개 계열의 각 시대에 따른 변화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 (2) Z-검정(모비율 검정)을 통한 Z-value, P-value를 이용하여 다른 시대군에 비하여 해당 시대군의 박해자의 발생이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 d. 수도권과 지방에서의 결과와 비교하였고 그 통계적 유의성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모비율 검정을 통한 Z-value, P-value를 알아보았다.

III. 결과

A. 사회 인구학적 변인의 비교 (Table 2)

각각의 논문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8개, 정신분열병을 포함한 정신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6개였으며 편집형 정신분열병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1개 있었다. 전체 2944명의 환자 중 정신분열병 환자는 2610명(88.6%)이었으며 정신분열병 이외의 정신증 진단을 받은 환자는 334명(11.4%)이었고, 남자가 1677명, 여자가 1267명이었다.

대부분의 논문에서 피해망상을 가진 환자는 남, 여 모두 20대에서 가장 많았고, 지역적으로는 4개의 논문이 지방에 소재한 병원에서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나머지 11개의 논문은 수도권에 소재한 병원에서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 환자의 학력은 1960년대 이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고, 과거로 갈수록 성별에 따른 학력의 차이를 나타냄은 물론 수도권에서 조사된 연구와 지방에서 조사된 연구에서 대상 환자의 학력에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종교는 대부분의 논문에서 종교없음이 가장 많았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순이었다.

직업은 공통적으로 무직(가정주부 포함)과 학생의 빈도수가 가장 높았으며 남자는 주로 무직과 학생의 빈도가 높았고 여자는 가정주부를 포함한 무직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B. 연대 순에 따른 결과(전체 17개, 남/여 12개) (Table 3, Table 4)

Table 2. Comparison of sociodemographic factors

연구	연구대상	환자수(남/여)	연령	지역	학력	종교	직업
1962 이병윤, 민병근	정신분열병 56~62 입원환자	93(59/34)		수도의과대학	전체:고졸,대학,소졸,무학 남:대학,고졸,소졸,무학 여:고졸,소졸,대학,무학		전체:무직(가정주부포함),학생,상업 남:무직,학생,상업,공무원,회사원 여:가정주부,무직,학생
1970 오승환	정신증 68~69 입원환자	61(35/26)	전체:20대,30대,10대,40대 남:20대,30대,10대=40대 여:20대,30대,10대,40대	서울대병원	전체:대학,중등,초등,무학 남:대학,중등,초등,무학 여:중등,대학,초등=무학	종교없음,기독교,불교	전체:무직(가정주부포함),학생,회사원 남자:학생,무직,회사원,공무원 여:가정주부,학생,무직
1974 이헌재	정신증 68~72	667(373/294)	남자 평균:29.4(SPR) 여자 평균:29.6(SPR)	고려대병원	전체:대학,고졸,중졸,초졸,무학 남:대학,고졸,중졸,초졸,무학 여:고졸,대학,초졸,중졸,무학	종교없음,기독교,불교	무직,학생,상업,공무원,회사원
1974 이대희, 이병윤, 송남옥	편집성 정신 분열병 72~74 내원환자	114(69/45)	평균:29.24 20대,30대,40대,10대	고려대우석병원 (서울)	대학,고졸,중졸,초졸,무학		무직(가정주부포함),학생,회사원
1974 이형영	정신증 72~74 입원환자	116(71/45)	전체:20대,30대,10대,40대 남:20대,30대,10대,40대 여:20대,30대,10대,40대	전남대학교병원	전체:고졸,국졸,중졸,대졸,무학 남:국졸=중졸,고졸,대졸,무학 여:고졸,국졸,중졸=무학,대졸	전체:종교없음,기독교,천주교,불교 남:종교없음,기독교,천주교=불교 여:종교없음,기독교,천주교,불교	전체:농업,무직,학생,공무원 및 회사원 남:농업,공무원 및 회사원,학생,무직 여:무직,농업,학생,공무원 및 회사원
1977 김학렬	정신증 73~76 입원환자	117(75/42)	전체:20대,30대,40대,10대 남:20대,30대,10대=40대 여:20대,30대,40대,10대	서울대학교병원	대학,고졸,초졸,중졸,무학	종교없음,기독교,천주교,불교	무직,학생,상업,공무원
1983 김광일, 박용천	정신분열병 80~82 입원환자	120(68/52)	20대,30대,10대,40대	한양대학병원			
1985 조완숙, 신동균, 이병윤	정신분열병 65~74 입원환자	348(215/133)	20대,30대,40대,10대	국립서울정신병원	전체:고등,대학,초등,중학 남:고등,대학,초등,중학 여:고등,초등,대학,중학		
	정신분열병 75~84 입원환자	209(109/100)	20대,30대,40대,10대	국립서울정신병원	전체:대학,고등,중학,초등 남:대학,고등,중학,초등 여:대학,고등,초등,중학		
1991 황인복	정신증 89~91 입원환자	144(70/74)	20대,30대,10대,40대	조선대학교병원	전체:고졸,대학,중졸,초졸,무학 남:고졸,대학,초졸,중졸,무학 여:고졸,중졸,대학,무학,초졸	전체:종교없음,기독교,천주교,불교 남:종교없음,기독교,천주교,불교 여:종교없음,기독교,천주교,불교	전체:무직(가정주부포함),회사원,학생,공무원 남:무직,학생,공무원,회사원,상업 여:무직(가정주부포함),회사원,학생,상업
1993 어근호, 김광일	정신분열병 80~82 입원환자	120(68/52)	20대,30대,10대,40대	한양대학병원			
	정신분열병 90~92 입원환자	120(68/52)	20대,30대,10대,40대	한양대학병원			

Table 2. Continued

1995 이형영	정신증 72~74 입원환자	116(71/45)	20대,30대,10대,40대	전남대학교병원	전체:국졸,고졸,중졸,대졸,무학 남:국졸=중졸,고졸,대졸,무학 여:고졸,국졸,무학,중졸,대졸	종교없음,기독교,천주교,불교	전체:농업,무직,학생,공무원 및 회사원 남:농업,공무원 및 회사원,학생,무직 여:무직,농업,학생,공무원 및 회사원
	정신증 94 입원환자	108(58/50)	20대,30대,10대,40대	전남대학교병원	전체:고졸,대졸,고졸,국졸,무학 남:고졸,대졸,중졸,국졸, 여:고졸,대졸,국졸,중졸,무학	종교없음,기독교,불교,천주교	전체:무직,학생,공무원 및 회사원,농업 남:무직,공무원 및 회사원,학생 여:무직,학생,농업,공무원 및 회사원
1996 이준석, 김광일, 박강규, 정은기	정신분열병 91 입원환자	292(156/136)	32.86 ± 10.46 20대,30대,40대,10대	한양대학병원 국립서울정신병원	중*고학력,대학이상,초졸	종교없음,종교인	
1998 이준석, 김광일, 이종일	정신분열병 95 입원환자	105(70/35)	평균:32 ± 7 20대,30대,40대,10대	한양대학병원 국립서울정신병원		기독교,종교없음,불교=천주교	
1999 최주연, 김광일, 박강규	정신분열병 91~97 입원환자	150(80/70)	30대,40대,20대,10대	국립서울정신병원 한양대학병원 (서울&구리병원)	7~12,12이상,6이하	종교없음,종교인	
2004 김승곤, 김학렬, 김상훈, 박상학, 김재민	정신분열병 01~03 입원환자	60(33/27)	평균:33.8 ± 9.56 30대,20대,40대,10대	조선대학교병원 도시,시골	대학,고졸,중졸,초졸	종교없음,종교인	

Table 3. Patient's number of each persecutor class : Total(Male/Female)

Year Class	56 ~62	68 ~69	65 ~74	68 ~72	72 ~74	72 ~74	73 ~76	75 ~84	80 ~82	80 ~82	89 ~91	91	90 ~92	94	95	97	01 ~03
1	12(2/10)	6(6/0)	154(91/63)	76(52/24)	27	17(12/5)	38	96(52/44)	9(2/7)	9	32	80(44/36)	24(17/7)	48(26/22)	22	19	34(20/14)
2	0(0/0)	30(15/15)	37(25/12)	55(24/31)	28	40(21/19)	17	47(14/33)	32(11/21)	32	43	71(34/37)	30(12/18)	35(15/20)	36	29	16(5/11)
3	2(2/0)	24(12/12)	60(32/28)	42(19/23)	23	41(25/16)	23	58(35/23)	29(15/14)	29	28	35(19/16)	37(25/12)	36(16/20)	20	31	12(10/2)
4	6(5/1)	6.5(4/2.5)	16(14/2)	14(12/2)	4	21.5(16.5/5)	0	1(0/1)	1(1/0)	1	2	10(6/4)	0(0/0)	0(0/0)	0	2	0(0/0)
5	5(5/0)	6.5(4/2.5)	48(35/13)	19(15/4)	17	21.5(16.5/5)	29	28(16/12)	34(26/8)	34	22	35(25/10)	14(10/4)	8(6/2)	15	15	3(1/2)
6	0(0/0)	7(2/5)	20(15/5)	4(3/1)	8	20(11/9)	0	26(12/14)	7(6/1)	7	13	21(11/10)	10(1/9)	18(10/8)	15	24	6(2/4)
7	6(5/1)	1(0/1)	47(28/19)	37(21/16)	7	38(25/13)	10	41(19/22)	8(7/1)	8	4	40(17/23)	5(3/2)	32(18/14)	19	10	4(3/1)
합계	31 (19/12)	81 (43/38)	382 (240/142)	247 (146/101)	114	199 (127/72)	117	297 (148/149)	120 (68/52)	120	144	292 (156/136)	120 (68/52)	177 (91/86)	127	130	75 (41/34)

Class 1: Unidentified or all person

Class 2: Family, relatives

Class 3: Neighbors, friends or fellows

Class 4: The communist or the red army, spy

Class 5: Secret agents, police, political character or army

Class 6: Impersonal(monster, devil, ghost, dead ancestor ect)

Class 7: Other

Table 4. Frequency(%) of each persecutor class : Total(Male/Female)

Year Class	56 ~62	68 ~69	65 ~74	68 ~72	72 ~74	72 ~74	73 ~76	75 ~84	80 ~82	80 ~82	89 ~91	91	90 ~92	94	95	97	01 ~03
1	38.7 (10.5/83.3)	9.8 (17.1/0)	44.2 (42.4/47.4)	30.8 (35.6/23.8)	23.7	8.5 (9.5/6.9)	32.5	45.9 (47.7/44.0)	7.5 (2.9/13.5)	7.5 (2.9/13.5)	22.2	27.4 (28.2/26.5)	20.0 (25.0/13.5)	27.1 (28.6/25.6)	21.0	17.1	56.7 (60.6/51.9)
2	0 (0/0)	49.2 (42.9/57.7)	10.6 (11.6/9.0)	22.3 (16.4/30.7)	24.6	20.0 (16.5/26.4)	14.6	22.6 (12.8/33.0)	26.7 (16.2/40.4)	26.7 (16.2/40.4)	29.9	24.3 (21.8/27.2)	25.0 (17.6/34.6)	19.8 (16.5/23.3)	34.3	26.1	26.7 (15.2/40.7)
3	6.5 (10.5/0)	39.3 (34.3/46.2)	17.3 (14.9/21.1)	17.0 (13.0/22.8)	20.2	20.6 (19.7/22.2)	19.6	27.7 (33.7/23.0)	24.2 (22.1/26.9)	24.2 (22.1/26.9)	19.4	12.0 (12.2/11.8)	30.9 (36.8/23.0)	20.3 (17.6/23.3)	19.0	27.9	20.0 (30.4/7.4)
4	19.4 (26.3/8.3)	10.7 (11.5/8.6)	4.6 (6.5/1.5)	5.7 (8.2/2.0)	3.5	10.8 (13.0/7.0)	0	0.5 (0/1.0)	0.8 (1.5/0)	0.8 (1.5/0)	1.4	3.4 (3.8/2.9)	0 (0/0)	0 (0/0)	0	1.8	0(0/0)
5	16.1 (26.3/0)	10.7 (11.5/8.6)	13.3 (16.2/9.9)	7.7 (10.2/4.0)	14.9	10.8 (13.0/7.0)	24.8	13.4 (14.7/12.0)	28.3 (38.2/15.4)	28.3 (38.2/15.4)	15.3	12.0 (16.1/7.4)	11.7 (14.7/7.7)	4.5 (6.6/2.3)	14.3	13.5	5.0 (3.0/7.4)
6	0(0/0)	11.5 (5.7/19.2)	8.6 (7.0/2.3)	1.6 (2.1/1.0)	7.0	10.1 (8.7/12.5)	0	12.5 (11.0/14.0)	5.8 (8.9/1.9)	5.8 (8.9/1.9)	9.0	7.2 (7.1/7.4)	8.3 (1.5/17.3)	10.2 (11.0/9.3)	14.3	21.6	10.0 (6.1/14.8)
7	19.4 (26.3/8.3)	1.6 (0/3.8)	13.5 (13.0/14.4)	14.9 (14.6/15.9)	6.1	19.0 (19.7/18.1)	8.5	19.7 (17.4/22.0)	6.7 (10.2/1.9)	6.7 (10.2/1.9)	2.8	13.7 (10.8/16.8)	4.1 (4.4/3.8)	18.1 (19.8/16.3)	18.1	9.0	6.7 (9.1/3.7)

Class 1: Unidentified or all person

Class 2: Family, relatives

Class 3: Neighbors, friends or fellows

Class 4: The communist or the red army, spy

Class 5: Secret agents, police, political character or army

Class 6: Impersonal(monster, devil, ghost, dead ancestor ect)

Class 7: Other

C. 시대 구분 없이 조사한 박해자의 계열별 총 환자수와 빈도(%)

시대의 구분 없이 모든 연구에서 박해자의 각 계열별 자료를 통합하여 각 계열별 환자수와 그 빈도를 Table 5에서 제시하였으며 이를 Fig. 1에서 원형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전체’는 17개의 결과의 피해망상의 박해자를 보인 2773명에서의 각 계열별 환자수와 빈도이며 ‘남자’와 ‘여자’에 대한 결과는 남, 여 구분이 가능한 12개의 결과의 남자 1215명, 여자 926명에 대한 각 계열별 환자수와 빈도에 대한 결과이다.

‘전체’ 경우의 계열 1(25.35%)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계열 2, 3, 5, 7, 6, 4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계열 1이(26.83%)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계열 3, 2, 5, 7, 6, 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계열 1이(25.81%)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계열 2, 3, 7, 5, 6, 4의 순으로 남자의 경우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남자’에서는 계열4, 계열5의 빈도가 여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에 있어서는 남자에 비해 계열 2의 빈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계열에서는 남·여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Table 5. The number and frequency(%) of each persecutor class from all of 15 papers

Class	Total		Male		Female	
	Number	(%)	Number	(%)	Number	(%)
1	703	25.4	326	26.8	239	25.8
2	578	20.8	187	15.4	238	25.7
3	530	19.1	225	18.5	180	19.4
4	85	3.1	59.5	4.9	17.5	1.9
5	354	12.8	185.5	15.3	70.5	7.6
6	206	7.4	79	6.5	67	7.2
7	317	11.4	153	12.6	114	12.3
total	2773	100.0	1215	100.0	926	100.0

Class 1: Unidentified or all person

Class 2: Family, relat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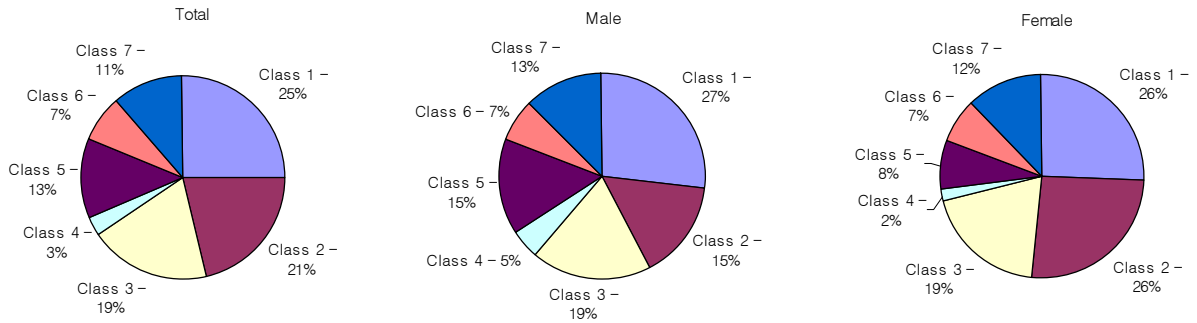
Class 3: Neighbors, friends or fellows

Class 4: The communist or the red army, spy

Class 5: Secret agents, police, political character or army

Class 6: Impersonal(monster, devil, ghost, dead ancestor ect)

Class 7: Other



Class 1: Unidentified or all person
 Class 2: Family, relatives
 Class 3: Neighbors, friends or fellows
 Class 4: The communist or the red army, spy
 Class 5: Secret agents, police, political character or army
 Class 6: Impersonal(monster, devil, ghost, dead ancestor ect)
 Class 7: Other

Fig. 1. Frequency(%) of each persecutor class from all of 15 papers

D. 각 계열의 연대에 따른 변화 및 추세선

연대순으로 나열된 각 7개의 계열의 연대에 따른 변화를 꺾은선형 그래프로 표시하고, 그 변화를 추세선을 이용하여 표시하였으며 이를 Fig. 2에서 나타내었다.

1. 전체

계열 1의 경우, 각각의 결과에서 일관성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추세선의 기울기가 거의 0에 가까웠다.

계열 2의 경우, 시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결과에서 20%~30% 정도의 높은 빈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추세선의 기울기가 0.58로 모든 계열 중에서 가장 급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계열 3의 경우, 시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결과에서 15%~30% 정도의 높은 빈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추세선의 기울기가 0.17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계열 4의 경우, 1956년부터 1962년까지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19.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70년대 초반 이후로는 거의 무시 가능한 정도의 빈도를 보이고 있고 추세선의 기울기는 -0.77로 모든 계열 중에서 가장 급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다.

계열 5의 경우, 70년대와 80년대의 결과에서 다른 시대의 것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추세선의 기울기가 -0.22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계열 6의 경우, 추세선의 기울기가 0.57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90년대 이후의 결과에서 보다 높은 빈도로 조사되었다.

계열 7의 경우, 다소 일관성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추세선의 기울기가 -0.1655로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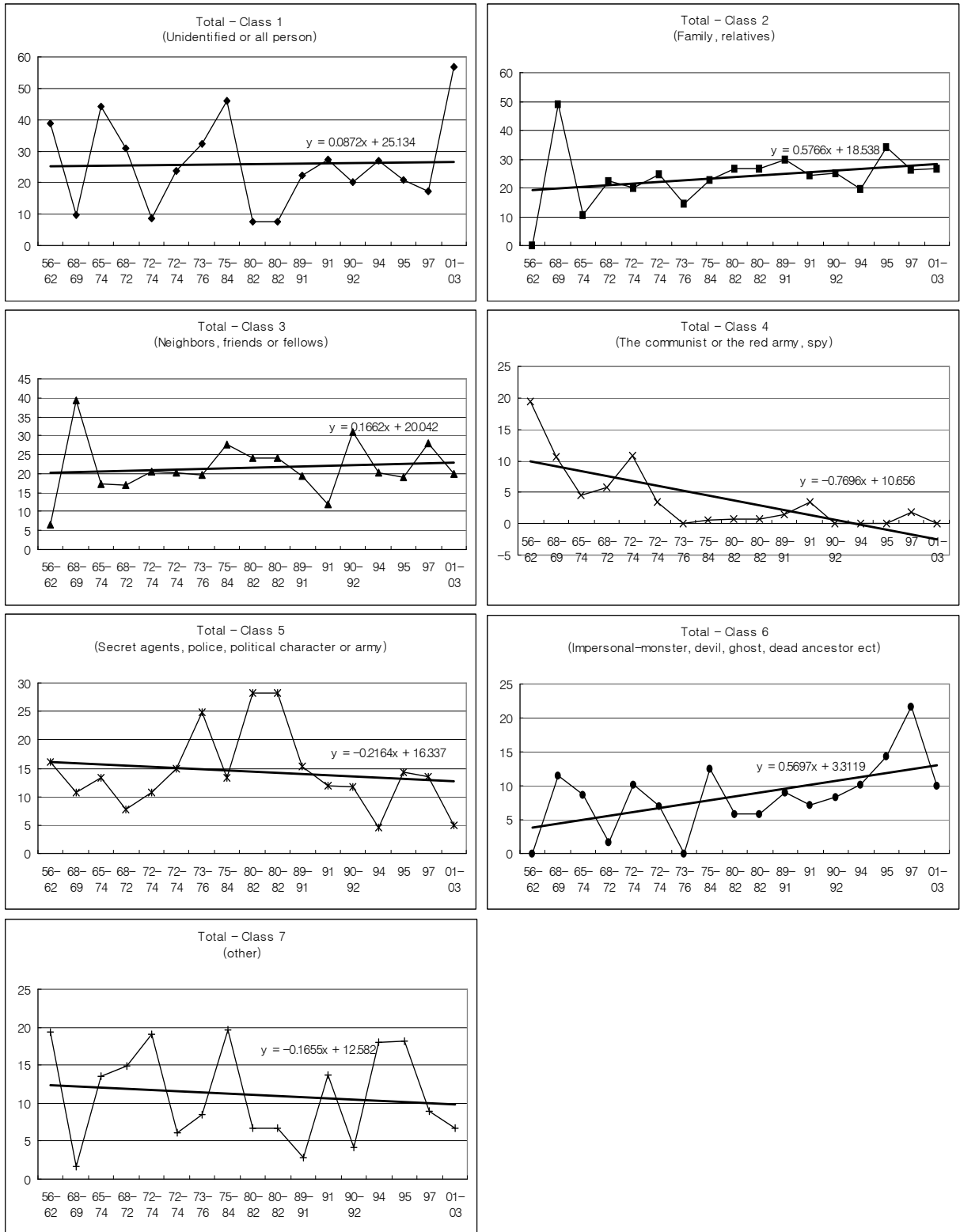


Fig. 2. Changes of frequency(%) in each persecutor class (Total)

추세선의 기울기 : 계열2>계열6>계열3>계열1>계열7>계열5>계열4

종합적으로 계열 2와 계열 6이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계열 3, 계열 1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계열 4에서 가장 높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계열 5, 계열 7의 순이었다. 이로써 추후 계열 2, 계열 6, 계열 3, 계열 1의 증가와 계열 4와 계열 5, 계열 7의 감소를 조심스럽게 예측하여 볼 수 있겠다.

2. 남자

계열 1의 경우, 조사 결과의 시대에 따른 변화의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나 추세선의 기울기가 1.50로 전체적으로 가장 강한 증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계열 2의 경우, 대부분의 결과에서 큰 변화없이 10~20% 정도의 일정한 빈도를 보고하고 있으며 추세선의 기울기는 거의 0에 가까웠다.

계열 3의 경우, 비교적 강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추세선의 기울기가 0.74로 나타났다.

계열 4의 경우, 1956년~1962년까지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26.3%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70년대 초반 이후로는 거의 무시가능한 정도의 빈도를 보이며 추세선의 기울기는 -1.73으로 모든 계열 중에서 가장 급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계열 5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추세선의 기울기 -0.64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70년대와 80년대의 결과에서 다른 시대의 것에 비하여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 6의 경우, 추세선의 기울기가 0.35로 증가하고 있는 결과를 보였고, 계열 7의 경우, 추세선의 기울기가 -0.44로 감소하고 있는 결과를 보였다.

종합적으로 계열 1이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계열 3, 계열 6, 계열 2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 4에서 가장 높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계열 5, 계열 7의 순이었다. 계열 2의 경우, 대체로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에 비해서는 계열 1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며 계열 2에서 나타난 ‘여자’의 강한 증가 추세에 비하여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계열 3의 경우, 상대적인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며 계열 4와 5에서는 상대적인 하향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남자’에 있어서 추후 계열 1, 계열 3, 계열 6의 증가와 계열 4와 계열 5, 계열 7의 감소를 조심스럽게 예측하여 볼 수 있으며 계열 2의 경우, 비교적 일정한 비율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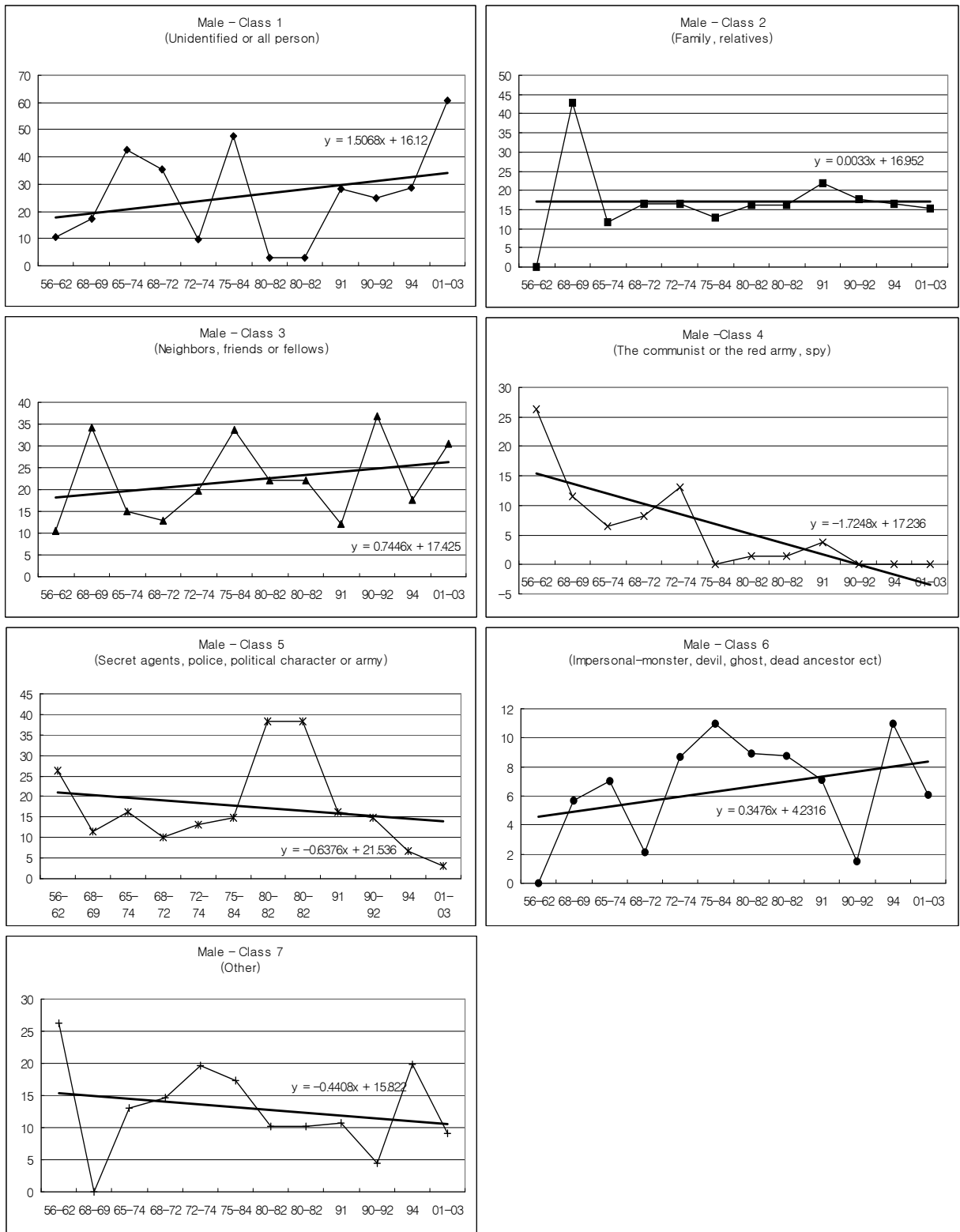


Fig. 3. Changes of frequency(%) in each persecutor class (Male)

추세선의 기울기 : 계열1>계열3>계열6>계열2>계열7>계열5>계열4

3. 여자

계열 1의 경우, 추세선의 기울기가 -1.22 로 비교적 높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1956년에서 1962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병윤과 민병근¹⁴⁾의 최초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83.3% 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이후의 결과에서는 ‘남자’와 유사하게 점차 비교적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계열 2의 경우, 1968~1969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남자’와 유사하게 현저하게 높은 빈도가 보고되었으며 추세선의 기울기는 1.22 로 가장 급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고, 이는 추세선의 기울기가 0 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던 ‘남자’의 결과와 매우 대조적이다.

계열 3의 경우, 추세선의 기울기가 -0.52 로 감소하고 있는 결과를 보였고 계열 4의 경우, 1956년~1962년까지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8.3% 를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70년대 초반 이후로는 거의 무시 가능한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추세선의 기울기는 -0.69 를 보였다.

계열 5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추세선의 기울기가 0.19 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나 ‘남자’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70년대와 80년대의 결과에서 다른 시대의 것에 비하여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90년대 이후에 접어들면서 두드러지게 감소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계열 6의 경우, 추세선의 기울기가 0.58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계열 7의 경우, 추세선의 기울기가 -0.27 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종합적으로 계열 2가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계열 6, 계열 5가 그 다음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 1에서 가장 높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계열 4, 계열 3, 계열 7의 순이었다. ‘남자’에 비해서 계열 2의 증가 추세와 계열 1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계열 3, 계열 4에서 상대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고, 계열 5의 경우 상대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로서 여자에 있어서 추후 계열 2, 계열 6, 계열 5의 증가와 계열 1, 계열 4, 계열 3, 계열 7의 감소를 조심스럽게 예측하여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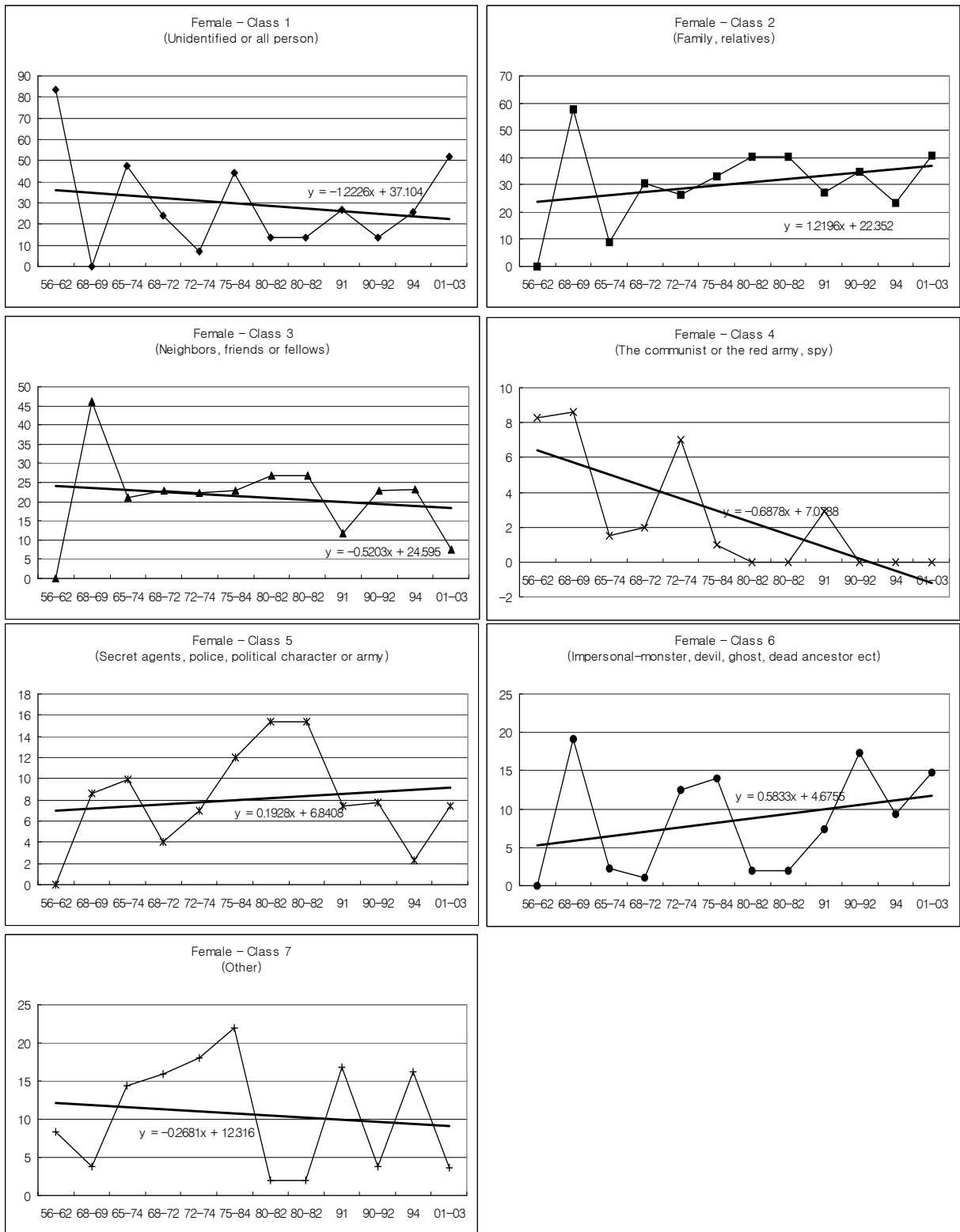


Fig. 4. Changes of frequency(%) in each persecutor class (Female)

추세선의 기울기 : 계열2>계열6>계열5>계열7>계열3>계열4>계열1

E. A, B, C 세 가지 시대 구분으로 나누어 본 시대에 따른 박해자

시대상에 따른 박해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17개의 결과를 시대에 따라 A(1945년 해방 이후~1960년), B(1961년~1992년), C(1993년 이후)의 3가지 시대군으로 나누어 각각의 시대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들을 서로 비교하였고 이를 Table 6, Table 7, Table 8에 제시하였고, 시대군에 따른 박해자의 변화 양상을 꺾은선 그래프로 Fig. 5, Fig. 6, Fig. 7에 제시하였으며 해당 시대군의 박해자의 빈도가 다른 시대에 비하여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Z-검정을 하였으며 이를 통한 Z-value, P-value 대하여 Table 9에서 제시하였다.

1. 전체

계열 1의 경우, A, B, C 모든 시대 구분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A시대에는 38.7%였다가 B, C시대에는 25.4%, 24.2%로 감소되었다.

계열 2의 경우, A시대에 0%였던 것이 B, C시대에는 각각 20.7%, 22.8%로 증가하였고, 계열 3의 경우, A시대에 6.5%였던 것이 B, C시대에 들어서는 19.2%와 19.4%로 증가하였다.

계열 4의 경우, A시대에 19.4%였던 것이 B시대에 3.4%로 급감하였고, C시대에는 거의 0%에 가까운 빈도를 보였다.

계열 5의 경우, A, B시대에 16.1%, 13.8%로 비교적 일정 빈도를 차지하던 것이 C시대에 들어서 8.1%로 의미있는 빈도의 감소를 보였다.

계열 6의 경우, A시대에 0%였던 것이 B, C시대에는 각각 6.4%와 12.4%로 점차 증가하였고, 계열 7의 경우, A시대에 19.4%로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였던 것이 B, C시대에는 11.0%, 12.8%로 감소하였다(Table 6, Fig. 5).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로는 계열 2가 A시대에서 낮은 빈도를 보였고($Z = -2.87, P = 0.001$), 계열 4가 A, B시대에는 높은 빈도를 보이고(A시대: $Z = 5.29, P = 0.000$; B시대: $Z = 2.38, P = 0.017$) C시대에는 낮은 빈도를 보였다는 것($Z = -3.87, P = 0.000$), 그리고 계열 5의 경우, B시대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고($Z = 3.30, P = 0.001$) C시대에는 낮은 빈도를 보였고($Z = -3.52, P = 0.000$), 계열 6의 경우, B시대에서 낮은 빈도를 보이고($Z = -4.18, P = 0.000$), C시대에는 높은 빈도를 보였다($Z = 4.71, P = 0.000$)는 점이다(Table 9).

2. 남자

계열 1의 경우, A시대에서 10.5%이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B, C시대에는 26.1%, 34.8%였다.

계열 2의 경우, A시대에서 0%이던 것이 B, C시대에는 15.7%, 15.2%로 증가하였고, 계열 3의 경우, A시대에는 10.5%였던 것이 B, C시대에는 18.5%, 19.7%로 증가하였다.

계열 4의 경우, A시대에 26.3%였던 것이 B시대에 5.1%로 급감하더니 C시대에는 0%를 보였고, 계열 5의 경우, A, B 시대에 26.3%, 16.3%이던 것이 C 시대에는 5.3%로 점차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계열 6의 경우, A시대에 0%였던 것이 B, C시대에는 6.3%, 9.1%로 점차 증가하였고, 계열 7의 경우, A시대에 26.3%로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였던 것이 B, C 시대에는 11.9%, 15.9%로 감소하였다(Table 7, Fig. 6).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로는 계열 1이 C시대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고($Z = 2.20, P = 0.028$), 계열 4가 A시대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고($Z = 4.33, P = 0.000$) C시대에서 낮은 빈도를 보였으며($Z = -2.77, P = 0.002$), 계열 5의 경우 B시대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고($Z = 2.68, P = 0.007$) C시대에서 낮은 빈도를 보였다는 점($Z = -3.38, P = 0.001$)이다(Table 9).

3. 여자

계열 1의 경우, A시대에서 83.3%로 전체 박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이 이후 감소하여 B, C시대에는 24.3%, 30.0%로 유지되는 결과를 보였다.

계열 2의 경우, A시대에서 0%이던 것이 B, C시대에는 26.1%, 25.8%로 증가를 보였고, 계열 3의 경우, A시대에는 0%였던 것이 B, C시대에는 19.9%와 18.3%를 나타내며 증가를 보였다.

계열 4의 경우, A시대에 8.3%였던 것이 B시대에 2.1%로 급감하더니 C시대에는 0%를 보였고, 계열 5의 경우, A시대 0%였던 것이 B시대에 8.4%로 증가하였다가 C시대에는 3.3%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계열 6의 경우, A시대에 0%였던 것이 B, C시대에는 6.3%, 9.1%로 점차 증가를 보였고, 계열 7의 경우, A시대에 8.3%였던 것이 B, C시대에는 12.3%, 12.5%로 증가를 보였다(Table 8, Fig. 7).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로는 계열 1이 A시대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고($Z = 4.58, P = 0.000$) B시대에서 낮은 빈도를 보였으며($Z = -2.56, P = 0.010$), 계열 2의 경우 A시대에서 낮은 빈도를 보였고($Z = -2.05, P = 0.044$), 계열 5의 경우 B시대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Z = 2.16, P = 0.032$)는 점이다(Table 9).

Table 6. Changes of the persecutor(%) with the vissitude of the times (Total)

Times Class	A	B	C
1	38.7%	25.4%	24.2%
2	0.0%	20.7%	22.8%
3	6.5%	19.2%	19.4%
4	19.4%	3.4%	0.4%
5	16.1%	13.8%	8.1%
6	0.0%	6.4%	12.4%
7	19.4%	11.0%	12.8%

Table 7. Changes of the persecutor(%) with the vissitude of the times (Male)

Times Class	A	B	C
1	10.5%	26.1%	34.8%
2	0.0%	15.7%	15.2%
3	10.5%	18.5%	19.7%
4	26.3%	5.1%	0.0%
5	26.3%	16.3%	5.3%
6	0.0%	6.3%	9.1%
7	26.3%	11.9%	15.9%

Table 8. The changes of the persecutor(%) with the vissitude of the times (Female)

Times Class	A	B	C
1	83.3%	24.3%	30.0%
2	0.0%	26.1%	25.8%
3	0.0%	19.9%	18.3%
4	8.3%	2.1%	0.0%
5	0.0%	8.4%	3.3%
6	0.0%	6.9%	10.0%
7	8.3%	12.3%	12.5%

Class 1: Unidentified or all person

Class 3: Neighbors, friends or fellows

Class 5: Secret agents, police, political character or ar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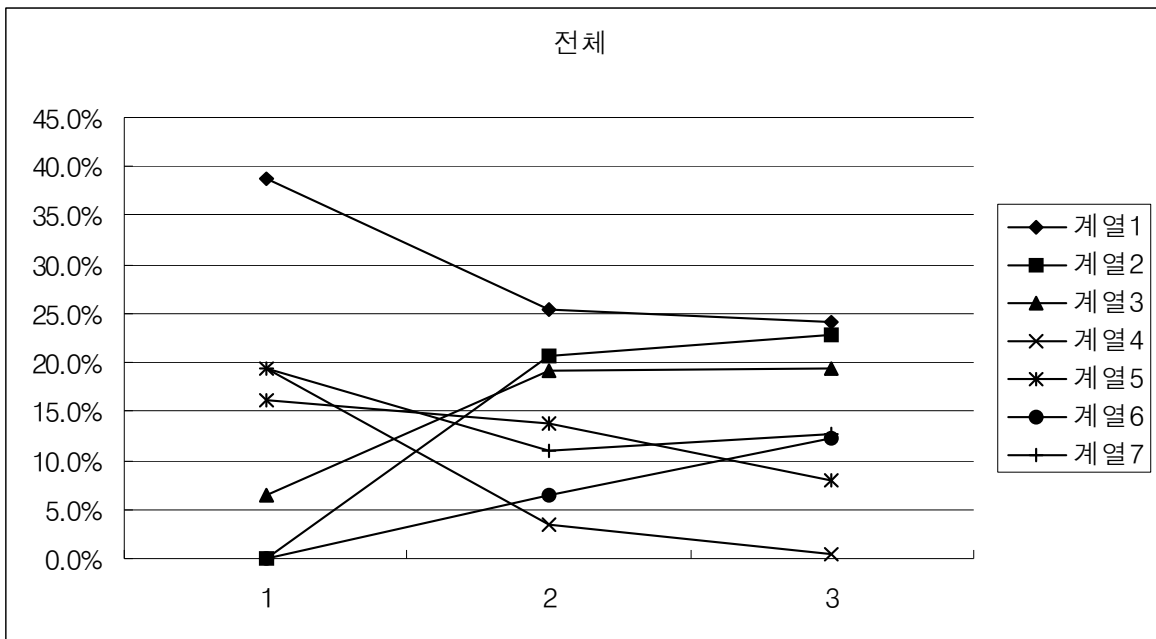
Class 7: Other

Class 2: Family, relatives

Class 4: The communist or the red army, spy

Class 6: Impersonal(monster, devil, ghost, dead ancestor ect)

Fig. 5. Changes of persecutor(%) with the vissitude of the times (Total)



Class 1: Unidentified or all person

Class 3: Neighbors, friends or fellows

Class 5: Secret agents, police, political character or ar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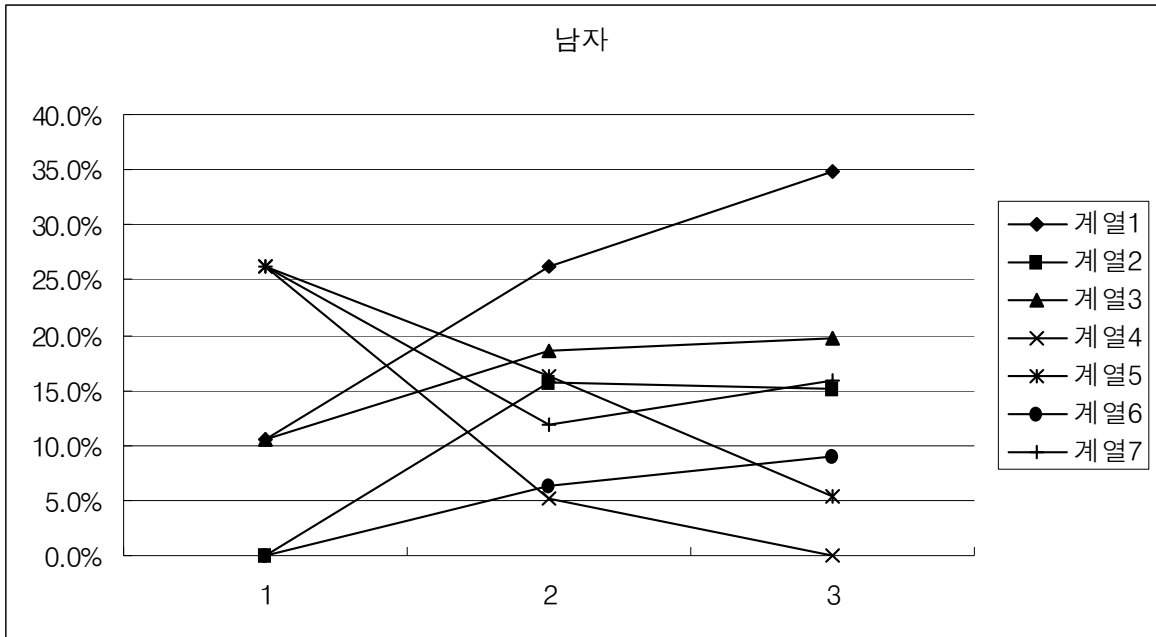
Class 7: Other

Class 2: Family, relatives

Class 4: The communist or the red army, spy

Class 6: Impersonal(monster, devil, ghost, dead ancestor ect)

Fig. 6. Changes of persecutor(%) with the vissitude of the times (Male)



Class 1: Unidentified or all person

Class 3: Neighbors, friends or fellows

Class 5: Secret agents, police, political character or ar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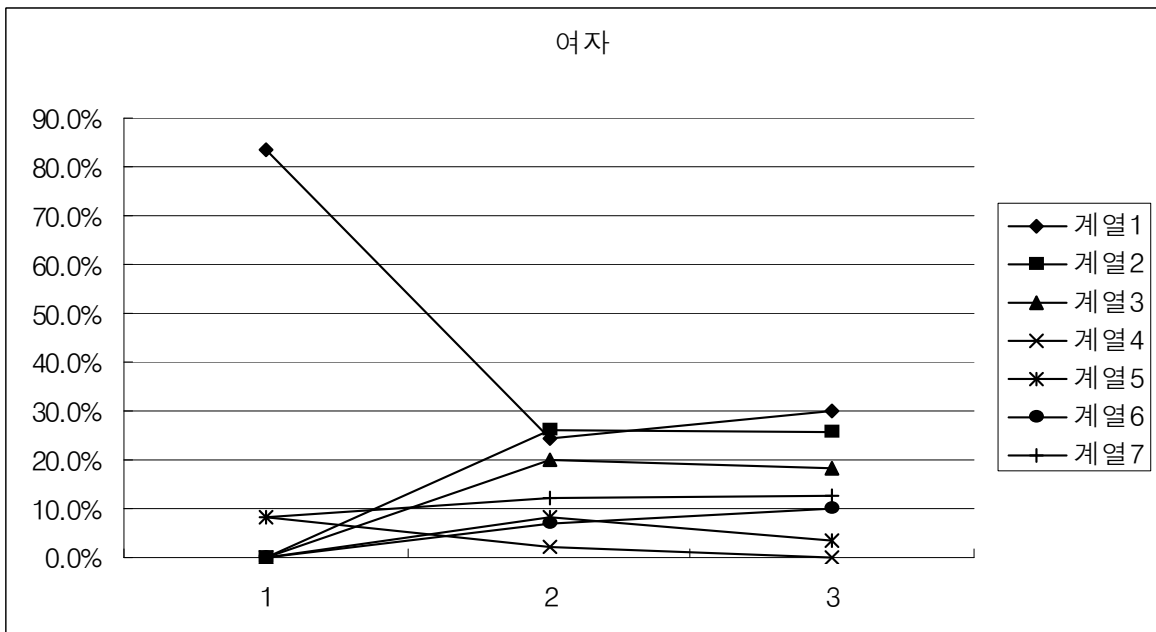
Class 7: Other

Class 2: Family, relatives

Class 4: The communist or the red army, spy

Class 6: Impersonal(monster, devil, ghost, dead ancestor ect)

Fig. 7. The changes of persecutor(%) with the vissitude of the times (Female)



Class 1: Unidentified or all person

Class 3: Neighbors, friends or fellows

Class 5: Secret agents, police, political character or army

Class 7: Other

Class 2: Family, relatives

Class 4: The communist or the red army, spy

Class 6: Impersonal(monster, devil, ghost, dead ancestor ect)

Class 7: Other

Table 9. Z-value and P-value from Z-test in each group(A, B, C)

Total	A	B	C
1	Z = 1.72 P-Value = 0.086	Z = 0.21 P-Value = 0.834	Z = -0.68 P-Value = 0.496
2	Z = -2.87 P-Value = 0.004 Fisher's exact test: P-Value = 0.001	Z = -0.41 P-Value = 0.684	Z = 1.20 P-Value = 0.232
3	Z = -1.80 P-Value = 0.071 Fisher's exact test: P-Value = 0.103	Z = 0.27 P-Value = 0.788	Z = 0.21 P-Value = 0.831
4	Z = 5.29 P-Value = 0.000	Z = 2.38 P-Value = 0.017	Z = -3.87 P-Value = 0.000 Fisher's exact test: P-Value = 0.000
5	Z = 0.56 P-Value = 0.573	Z = 3.30 P-Value = 0.001	Z = -3.52 P-Value = 0.000
6	Z = -1.59 P-Value = 0.113 Fisher's exact test: P-Value = 0.165	Z = -4.18 P-Value = 0.000	Z = 4.71 P-Value = 0.000
7	Z = 1.39 P-Value = 0.163	Z = -1.40 P-Value = 0.162	Z = 1.05 P-Value = 0.294
Male	A	B	C
1	Z = -1.62 P-Value = 0.106 Fisher's exact test: P-Value = 0.123	Z = -1.47 P-Value = 0.142	Z = 2.20 P-Value = 0.028
2	Z = -1.87 P-Value = 0.061 Fisher's exact test: P-Value = 0.099	Z = 0.78 P-Value = 0.435	Z = -0.08 P-Value = 0.936
3	Z = -0.90 P-Value = 0.366 Fisher's exact test: P-Value = 0.553	Z = -0.01 P-Value = 0.993	Z = 0.37 P-Value = 0.712
4	Z = 4.33 P-Value = 0.000	Z = 0.99 P-Value = 0.324	Z = -2.77 P-Value = 0.006 Fisher's exact test: P-Value = 0.002
5	Z = 1.34 P-Value = 0.179	Z = 2.68 P-Value = 0.007	Z = -3.38 P-Value = 0.001
6	Z = -1.16 P-Value = 0.247 Fisher's exact test: P-Value = 0.629	Z = -0.77 P-Value = 0.442	Z = 1.28 P-Value = 0.201
7	Z = 1.82 P-Value = 0.069	Z = -1.83 P-Value = 0.067	Z = 1.22 P-Value = 0.224
Female	A	B	C
1	Z = 4.58 P-Value = 0.000 Fisher's exact test: P-Value = 0.000	Z = -2.56 P-Value = 0.010	Z = 1.12 P-Value = 0.261
2	Z = -2.05 P-Value = 0.040 Fisher's exact test: P-Value = 0.044	Z = 0.63 P-Value = 0.529	Z = 0.04 P-Value = 0.972
3	Z = -1.71 P-Value = 0.087 Fisher's exact test: P-Value = 0.138	Z = 0.87 P-Value = 0.38	Z = -0.33 P-Value = 0.743
4	Z = 1.61 P-Value = 0.107 Fisher's exact test: P-Value = 0.211	Z = 1.07 P-Value = 0.286 Fisher's exact test: P-Value = 0.495	Z = -1.65 P-Value = 0.098 Fisher's exact test: P-Value = 0.152
5	Z = -1.00 P-Value = 0.315 Fisher's exact test: P-Value = 0.615	Z = 2.16 P-Value = 0.031 Fisher's exact test: P-Value = 0.032	Z = -1.91 P-Value = 0.056 Fisher's exact test: P-Value = 0.064
6	Z = -0.97 P-Value = 0.330 Fisher's exact test: P-Value = 1.000	Z = -0.89 P-Value = 0.374	Z = 1.25 P-Value = 0.21
7	Z = -0.42 P-Value = 0.673 Fisher's exact test: P-Value = 1.000	Z = 0.07 P-Value = 0.943	Z = 0.07 P-Value = 0.946

CI : 95%, if $Z \geq 1.96$ (valuable increase) or $Z \leq -1.96$ (valuable decrease) then consider as a valuable one, if P value ≤ 0.05 and then consider as valuable, too. If the object is too small to conclude then apply Fisher's test to revision the P-value

E. 수도권과 지방에서 조사된 각 계열별 박해자의 환자수와 빈도

Table 10(전체), Table 11(남자), Table 12(여자)에서 수도권에서 조사된 논문과 지방에서 조사된 논문에 대해 비교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에 대하여 Table 13에서 나타내었다.

1. 전체

계열 1의(수도권: 26.3%, 지방 22.0%)경우, 수도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Z = 2.11, P = 0.035$) 계열 2(수도권: 20.4%, 지방: 22.5%), 계열 3(수도권: 19.0%, 지방: 19.7%), 계열 4(수도권: 2.8%, 지방 3.9%)의 경우, 지방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계열 5(수도권: 13.8%, 지방: 9.2%)의 경우, 수도권에서 유의한 수준의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Z = 2.93, P = 0.003$) 반대로 계열 6(수도권: 6.8%, 지방 9.6%)의 경우, 지방에서 유의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다($Z = 2.26, P = 0.024$). 계열 7(수도권: 11.0%, 지방 13.1%)의 경우, 수도권이 지방에 비하여 낮은 빈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2. 남자

계열 1(수도권: 28%, 지방: 22.4%)의 경우, 수도권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계열 2(수도권: 15.3%, 지방: 15.8%), 계열 3(수도권: 18.2%, 지방: 19.7%), 계열 4(수도권: 4.5%, 지방: 6.4%)의 경우, 지방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계열 5(수도권: 16.5%, 지방: 9.1%)의 경우, 수도권에서 유의한 수준의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Z = 3.04, P = 0.002$) 계열 6(수도권: 5.9%, 지방 8.9%)의 경우, 지방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계열 7(수도권: 11.2%, 지방 17.8%)의 경우, 지방에서 유의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다($Z = 2.83, P = 0.005$).

3. 여자

계열 1(수도권: 27%, 지방: 21.4%)의 경우, 수도권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계열 2(수도권: 25.6%, 지방: 26.0%), 계열 3(수도권: 19.3%, 지방: 19.8%), 계열 4(수도권: 1.7%, 지방: 2.6%)의 경우, 지방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계열 5(수도권: 8.4%, 지방: 4.7%)의 경우, 수도권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었으며 계열 6(수도권: 6.3%, 지방

10.9%)의 경우, 지방에서 유의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다($Z = 2.22$, $P = 0.026$). 계열 7(수도권: 11.7%, 지방 14.6%)의 경우, 수도권이 지방에 비하여 낮은 빈도를 보였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Table 10. Comparison of capital region and the country (Total)

Class	Capital region		Country	
	N	(%)	N	(%)
1	572	26.3%	131	22.0%
2	444	20.4%	134	22.5%
3	413	19.0%	117	19.7%
4	61.5	2.8%	23.5	3.9%
5	299.5	13.8%	54.5	9.2%
6	149	6.8%	57	9.6%
7	239	11.0%	78	13.1%
총	2178	100%	595	100%

Table 11. Comparison of capital region and the country (Male)

Class	Capital region		Country	
	N	(%)	N	(%)
1	268	28.0%	58	22.4%
2	146	15.3%	41	15.8%
3	174	18.2%	51	19.7%
4	43	4.5%	16.5	6.4%
5	162	16.9%	23.5	9.1%
6	56	5.9%	23	8.9%
7	107	11.2%	46	17.8%
총	956	100%	259	100%

Table 12. Comparison of capital region and the country (Female)

Class	Capital region		Country	
	N	(%)	N	(%)
1	198	27.0%	41	21.4%
2	188	25.6%	50	26.0%
3	142	19.3%	38	19.8%
4	12.5	1.7%	5	2.6%
5	61.5	8.4%	9	4.7%
6	46	6.3%	21	10.9%
7	86	11.7%	28	14.6%
총	734	100%	192	100%

Class 1: Unidentified or all person

Class 2: Family, relatives

Class 3: Neighbors, friends or fellows

Class 4: The communist or the red army, spy

Class 5: Secret agents, police, political character or army

Class 6: Impersonal(monster, devil, ghost, dead ancestor ect)

Class 7: Other

Table 13. Z-value and P-value from Z-test of capital region and the country

Total	Capital region	Country
1	Z = 2.11 P-Value = 0.035	Z = -2.11 P-Value = 0.035
2	Z = -1.14 P-Value = 0.256	Z = 1.14 P-Value = 0.256
3	Z = -0.39 P-Value = 0.700	Z = 0.39 P-Value = 0.700
4	Z = -1.48 P-Value = 0.139	Z = 1.48 P-Value = 0.139
5	Z = 2.93 P-Value = 0.003	Z = -2.93 P-Value = 0.003
6	Z = -2.26 P-Value = 0.024	Z = 2.26 P-Value = 0.024
7	Z = -1.45 P-Value = 0.147	Z = 1.45 P-Value = 0.147
Male		
1	Z = 1.82 P-Value = 0.069	Z = -1.82 P-Value = 0.069
2	Z = -0.22 P-Value = 0.825	Z = 0.22 P-Value = 0.825
3	Z = -0.55 P-Value = 0.584	Z = 0.55 P-Value = 0.584
4	Z = -1.36 P-Value = 0.173	Z = 1.36 P-Value = 0.173
5	Z = 3.04 P-Value = 0.002	Z = -3.04 P-Value = 0.002
6	Z = -1.75 P-Value = 0.080	Z = 1.75 P-Value = 0.080
7	Z = -2.83 P-Value = 0.005	Z = 2.83 P-Value = 0.005
Female		
1	Z = 1.58 P-Value = 0.113	Z = -1.58 P-Value = 0.113
2	Z = -0.12 P-Value = 0.904	Z = 0.12 P-Value = 0.904
3	Z = -0.14 P-Value = 0.890	Z = 0.14 P-Value = 0.890
4	Z = -0.74 P-Value = 0.457	Z = 0.74 P-Value = 0.457
5	Z = 1.74 P-Value = 0.081	Z = -1.74 P-Value = 0.081
6	Z = -2.22 P-Value = 0.026	Z = 2.22 P-Value = 0.026
7	Z = -1.08 P-Value = 0.282	Z = 1.08 P-Value = 0.282

CI : 95%, if $Z \geq 1.96$ (valuable increase) or $Z \leq -1.96$ (valuable decrease) then consider as a valuable one, if P value ≤ 0.05 and then consider as valuable, too.

IV. 고찰

정신분열병은 주요 정신병의 하나로서 뇌의 기질적 장애로 인한 의식혼탁의 징조없이 사고, 정동, 감각, 의욕, 운동성 행동 등 인격의 각 측면에서의 특이한 와해를 일으키는 병이다.²⁸⁾

피해망상은 정신분열병 및 정신증에서 나타나는 망상중 가장 흔하고^{1,8,9)} 곤란한 충동적 경향이나 성격의 감당하기 어려운 일면이 외부로부터의 적으로 투사되어 나타나는 것^{1,8)}으로 사회와, 문화의 시간적·공간적 차이를 반영하여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²⁹⁻³³⁾

따라서 피해망상을 가진 정신분열병 및 정신증 환자에서의 박해자의 빈도 및 변화는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간 국내에서의 연구는 주로 횡문화적 단면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시대적 상황에 따른 박해자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처럼 이병윤, 민병근(1962)¹⁴⁾의 논문 이후 조사된 모든 연구에서의 박해자의 빈도를 종합하여 비교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A. 시대 구분 없이 조사한 박해자의 계열별 총 환자수와 빈도

‘전체’의 경우 계열 1이(25.4%)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계열 2(20.8%), 계열 3(19.1%)이 다른 계열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계열 2와 계열 3이 비교적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은 가족이나 친족, 이웃 등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가치관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으며^{1,8)} 이는 실제 임상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보인다.

성별에 따라 보았을 때 역시 ‘남자’(26.8%), ‘여자’(25.8%)에서 모두 계열 1이 가장 높은 빈도로 조사되었다. ‘여자’에서 ‘남자’에 비하여 계열 2의 빈도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남자:15.4%, 여자:25.7%) 전통적으로 여성의 가족 내에서 역할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함에 반해 사회적 활동은 극히 제한하여왔던 상황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1,8)} ‘남자’에 있어 계열 4(남자:4.90%, 여자:1.89%), 계열 5(남자:15.27%, 여자:7.61%)가 여자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나타난 것 역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사회적·정치적 활동에 관심과 비중이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1,8)}로 볼 수 있겠으며 이러한 결과는 문화의 특수성 속에서 정서적으로 좀더 가까운 대상에게 내적 갈등을 쉽게 투사하여 박해자로 나타난다는 사실^{1,8,32)}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겠다.

B. 각 계열별 시대에 따른 변화

계열 1의 경우, 전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난 박해자였으나 각각의 결과에서 그 빈도의 변화가 크고 시대에 다른 일관성이 없는 결과로 각각의 논문에서 적용된 기준에 따라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형영(1995)¹²⁾과 어근호, 김광일(1993)¹¹⁾의 각기 다른 시대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종문화적 연구에서 최근의 환자일수록 계열 1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대도시화, 고도의 산업사회화에 따른 사회적 다변화와 다각화로 투사의 대상이 이전처럼 뚜렷하지 않아 여러 사람 혹은 여러 집단 등의 불특정 다수로 분산되고 있다^{11,12)}고 설명한 바 있고, 김승곤 등²⁴⁾의 연구에서 계열 1로 56.7%의 높은 빈도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A시대군에서 가장 높고(38.7%), B, C시대군에서는 각각 25.4%와 24.2%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세선의 기울기가 0.09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계열 2의 경우,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20~30%정도의 높은 빈도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적 상황이 정신분열병에 있어서 또한 가정을 중심으로 투사의 대상을 꾸준히 찾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남자에 있어서는 큰 변화없이 일정한 빈도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여자에 있어서는 추세선의 기울기가 1.13으로 가장 강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일부 논문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족이나 친족이(계열 2) 박해자로 등장하는 빈도가 줄어들었음을 보고하였고 이를 산업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설명한 바 있으나¹³⁾ 최근의 연구인 이준석 등(1998)²³⁾의 34.3%, 1999년 최주연 등(1999)¹³⁾의 26.1%, 2004년 김승곤 등(2004)¹⁸⁾의 26.7%에서 이전의 연구에서보다 비교적 높은 빈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계열 2의 전체 평균인 20.8%보다도 높은 빈도를 보였다.

계열 3의 경우 또한 계열 2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결과에서 꾸준히 높은 빈도와 함께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남자에서는 강한 증가 추세를, 반대로 여자에서는 감소 추세를 보여 계열 2의 결과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이웃과 친구, 직장동료와의 관계를 더욱 의미있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계열 2와 계열 3의 결과는 산업화와 핵가족화를 통하여 점차 가족에 대한 개념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현대 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사회적 역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사회상황과 분명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1,13)}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과 아울러 추후 이러한 변화가 박해자의 빈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계열 4의 경우, 이병운, 민병근(1962)¹²⁾의 논문에서 불특정인 다음으로 의미있게 높은 빈도를 보였다가($Z = 5.29, P = 0.000$) 197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의 결과에서 5% 미만으로 통계적으로도 의미있는 감소를 보였다($Z = -3.87, P = 0.000$). 이는 해방 이후 이념간의 대립으로 6.25전쟁과 같은 격심한 혼란을 겪었고, 이로 인해 1960년대까지 중요한 박해자로 대두되었다가 이후 사회가 안정되면서 점차 감소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남자에게서 더욱 뚜렷하였고 특히나 남성에서는 통계적으로도 의미있는 수준이었다($Z = -2.77, P = 0.002$). 이는 남성이 좀더 반공사상에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생각하여 볼 수 있겠다.

계열 5의 경우, 특징적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증가된 소견을 보였고($Z = 3.30, P = 0.001$) 그 이후에는 의미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Z = -3.52, P = 0.000$). 이는 우리나라의 3, 4, 5, 6공화국으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기에 3선 개헌, 10월 유신과 함께 경찰의 사찰, 학생과 민주 인사에 대한 구속, 고문, 야당 탄압 등이 심하였던 정치적·사회적 상황을 생각하여 보면 정치적 대상, 안기부, 경찰, 군인 등이 민감한 투사 영역이 되어 박해자로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비교적 쉽게 이해 가능한 현상이다. 1990년대 이후 독재 정치가 완화되어 정치상황의 긴장 또한 완화되고 문민 정부의 등장과 함께 점차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차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계열 4와 마찬가지로 남자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나 남성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도 의미있는 결과였다($Z = -3.38, P = 0.001$). 계열 4와 5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정치적·사회적 관심과 활동이 더 높은 것으로 설명하여 볼 수 있겠다.

계열 6의 경우, 전체적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장환일(1992)⁸⁾은 한국인의 망상특징에 대한 설명에서 ‘비인격적 대상은 과거보다 현재에 와서 박해자로 등장하는 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이다’라고 보고하였으나 그 이후의 자료인 어호근과 김광일(1993)¹¹⁾ 8.3%, 이형영(1995)¹²⁾ 10.2%, 이준석 등(1998)²³⁾ 14.3%, 1999년 최주연 등¹³⁾ 21.6%, 2004년 김승곤 등²⁴⁾ 10%의 연구에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빈도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는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소견이었다($Z = 4.71, P = 0.000$).

C. 지역에 따른 박해자의 계열별 비교

학력, 직업과 같은 사회 인구학적 변인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조사된 논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시대에 따른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의 환자는 수도권에 비하여 학력이 현저히 낮고, 직업적으로도 농업과 무직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환자의 거주지에 따라 박해자의 빈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계열 1(수도권: 26.3%, 지방: 22.0%)이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훨씬 다양한 직종과 다변화와 산업화가 진행된 수도권에서 뚜렷한 투사의 대상을 찾기 어려워 여러 사람 혹은 여러 집단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인 것^{11,12)}으로 판단하여 볼 수 있겠으며, 계열 5(수도권: 13.8%, 지방: 9.2%)의 빈도가 수도권에서 높은 것은 정치 사회적 관심이 지방에 비해 수도권에서 보다 높음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계열 6(수도권: 6.8%, 지방: 9.6%)이 지방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학력이 낮고 전통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방에서 신, 조상, 귀신, 도깨비와 같은 비과학적·초자연적 대상, 비인간적 존재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여 볼 수 있겠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방에서 계열 2(수도권: 20.4%, 지방: 22.5%), 계열 3(수도권: 19.0%, 지방: 19.7%)의 빈도가 높은 것은 가족과 이웃을 좀더 중요시하는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계열 5에서 남자($P=0.020$)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경우($P=0.081$)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점은 남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여자의 정치적 관심이 수도권, 지방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있음을 대변하는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계열 6에서 남자($P=0.080$)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경우($P=0.026$)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점은 남자에 비하여 여자에서 전통적, 비과학적, 비인간적 존재에 대한 관심이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D. 제한점

1. 인용한 논문에서의 박해자의 빈도를 조사한 기간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조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시된 추세선의 기울기를 절대적인 값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또한 각각의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결과가 너무 일관성 없이 불규칙하여 추세선을 구하는 자체가 다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추세선의 기울기를 단순히

본 논문 안에서 각 계열의 변화 추이와 다른 계열간의 비교 및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참고적인 하나의 통계 자료로만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A, B, C 세 가지 시대군으로 나누어 박해자의 양상을 비교하였으나 A 시대군에는 아쉽게도 단 하나의 논문만이 해당되었다. 또한 해당 환자들의 수가 너무 적어 A시대군의 경우 다른 시대군에 비하여 단일 논문의 결과를 전체로 일반화하여 그 논문의 특수한 결과가 과대 해석되었을 수 있겠다.
3. 연구 보고들은 각기 다른 병원에서 각기 다른 연구자가 조사한 것이어서 진단 기준, 박해자의 분류 방법, 연구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어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대한 객관적인 비교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분류 가능한 7가지의 박해자로 나누었으며 부득이하게 각 연구의 자료를 재정리하여야만 하였다. 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기존 연구자들의 각각의 연구 특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바 앞으로는 박해자의 구분에 대한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여 여러 연구의 객관적 비교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겠다.
4. 1970년 오승환¹⁵⁾과 1974년 이형영¹⁸⁾의 논문에서는 계열 4, 계열 5의 분류를 하나의 '정치적 대상'으로 묶어 조사하였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data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각각의 계열로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계열 4, 계열 5에 각각 50%씩 분배되도록 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정신분열병 및 정신증 환자들의 피해망상 속에 나타난 박해자에 대해 조사한 여러 논문들을 통하여 박해자의 빈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 불특정인(계열 1)이 가장 흔한 박해자였다.
2. 가족이나 친족(계열 2)과 초인간적, 비인간적 존재(계열 6)에서 높은 증가의 추세를 보이고, 공산당, 빨갱이, 간첩(계열 4)에서 높은 감소의 추세를 보였다.
3. 해방이후 1960년 까지(A시대군)에는 공산당, 빨갱이 간첩(계열 4)이 높은 빈도를 보였고, 군부세력 집권기인 3, 4, 5, 6 공화국 시대(B시대군)

에는 정치적 대상, 안기부, 경찰, 군인(계열 5)이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문민정부 집권기인 7, 8, 9 공화국 시대(C시대군)에서는 초자연적, 비인간적 존재(계열 6)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4. 수도권에서는 불특정인(계열 1)과 정치적대상, 안기부, 경찰, 군인(계열 5)의 빈도가 높았고 지방에서는 초자연적, 비인간적 존재(계열 6)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5. 남·여의 비교에 있어서 여성에서 가족, 친족(계열 2)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고, 남성에서 이웃, 친구, 직장동료(계열 3)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 또한 남성에서 문민정부 집권기(C시대군)에 공산당, 빨갱이, 간첩(계열 4)과 정치적대상, 안기부, 경찰, 군인(계열 5)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인 반면 여성에서는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를 통하여 정신분열병 및 기타 정신증에서의 피해망상 속에 나타난 박해자는 성별과 지역에 따라 다르며, 시대 상황이나 시대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1) 김광일. 문화와 정신분열증. 정신건강연구 1991;10:97-118.
- 2) 한동세. 정신과학. 서울: 일조각; 1972. p.170
- 3) Carothers JC. The African Mind in Health and Disease : A Study in Ethnopsychiatry.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1953.
- 4) Murphy HBM, Wittkower ED, Fried J, Ellenberger H. A cross cultural survey of schizophrenia symptomatology. In proceedings of the World Congress of Psychiatry 2:1309-1315, 1961.
- 5) Nielsen JA, Nielsen J. Prevalence investigation of mental illness in the aged in 1961, 1972 and 1977 in a geographically delimited Danish population group. Acta Psychiatr Scand 1989; 79(supple):95-104.
- 6) Wittkower ED, Rin H. Transcultural psychiatry. Arch Gen Psychiatry 1965;13:386-394.
- 7)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international pilot study of schizophrenia.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1973.
- 8) 장환일. 한국인의 망상특징. 정신건강연구 1992;11:63-73.
- 9) 조완숙, 신동균, 이병윤. 정신분열증환자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른 망상내용의 분석. 고대의대논집 1985;22:207-218.
- 10)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th ed. Washington DC, APA Press; 1994. p.274-275
- 11) 어호근, 김광일. 정신분열증 망상 속의 박해자: 과거 10년간의 비교. 신경정신의학 1993;32:195-200.
- 12) 이형영. 정신병 환자의 망상에 나타난 대상. 전남의대잡지 1995;31:23-31.
- 13) 최주연, 김광일, 박강규. 정신분열병의 망상: 발병시대에 따른 망상 내용의 차이. 정신건강연구 1999;18:134-146.
- 14) 이병윤, 민병근. 한국인 정신분열증 환자의 망상에 대한 연구-제 1편,

- 정신분열증 환자의 망상에 대한 통계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962;1:35-40.
- 15) 오승환. 한국인 정신증 환자의 피해망상에 나타난 박해자. 신경정신의학 1970;9:77-84.
 - 16) 이현재. 정신병환자의 망상에 관한 연구. 고대의대논집 1974;11:655-672.
 - 17) 이대회, 이병윤, 송남옥. 편집성 정신분열증의 아형별 망상 및 환각에 대한 내용분석. 신경정신의학 1974;13:315-324.
 - 18) 이형영. 정신증 환자의 망상에 나타난 대상. 전남의대잡지 1974; 11:1479-1483.
 - 19) 김학렬. 입원 환자의 피해망상에 대한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977;16:257-262.
 - 20) 김광일, 박용천. 꿈과 망상속의 박해자에 관한 비교고찰. 정신건강연구 1983;1:91-98.
 - 21) 황인복. 정신과 입원환자의 피해망상에 나타난 박해자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광주: 조선대학교; 1991.
 - 22) 이준석, 김광일, 박강규, 정은기. 정신분열증 망상에 나타난 박해자 : 인구학적 및 임상요인별 출현빈도. 정신건강연구 1996;15:148-157.
 - 23) 이준석, 김광일, 이종일. 정신분열병 환자의 종교성향과 망상에 나타난 박해자. 신경정신의학 1998;37:1034-1043.
 - 24) 김승곤, 김학렬, 김상훈, 박상학, 김재민. 일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은 피해망상을 가진 정신분열병 환자의 박해자. 사회정신의학 2004;9:10-15.
 - 25) 동아일보사. 현대 한국을 뒤흔든 60대 사건: -해방에서 제 5공화국 까지 -. 서울: 동아일보사; 1998.
 - 26) 조선일보사. 한국 현대사 119 대사건. 서울: 조광출판사; 1993.
 - 27) 중앙일보사. 한국 사회 10대 분야 100대 드라마. 중앙일보 2005년 7월 21일-2005년 9월 22일; S1-S10
 - 28) 김용식, 이정균. 정신의학. 4판. 서울: 일조각; 2000. p.252, 267
 - 29) Murphy HBM, Wittkower ED, Fried J, Ellenberger H. A cross-cultural survey of schizophrenic symptomatology. Int J Soc Psychiatry 1963;9:237-249

- 30) Masato T, Masahiro A, Motohide H, Mathias B, Siegfried K. Transcultural study of schizophrenic delusions. *Psychopathology* 1998;31:59-68
- 31) Mitchell J, Vierkant AD. Delusion and hallucination as a reflection of the subcultural milieu among psychiatric patients of the 1930s and 1980s. *J psychology* 1989;123:269-274
- 32) Murphy HBM. Cultural aspect of the delusion. *Stadium Generale* 1967;20:684-692
- 33) Sims A. *Symptoms in the mind: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psychopathology*. London, WB Saunders; 1988. p.117-148.